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

10118 엄주영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매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인문 책 읽기를 좋아하고, 수학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 책은 내게 마치 공학을 전공할 사람이 ‘엔트로피’를 읽어봐야 하는 것처럼 이 책도 내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했다. 또한 수학과 인문의 조화라니 매우 기대대는 책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웅 중 한명인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술(양쪽으로 에워싸고 공격하는 진형)을 누구나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수학과 관련이 있었으리라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거다. 학익진 전술은 적군을 중심으로 하여 배들을 부채꼴모양으로 해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군의 배와 직선사이에 거리를 알아야 상대방의 배를 쓰러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거리를 측정하려면 당연히 수학을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수학은 여러 곳에서 우리 알지 못하는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한 (그 외에 피타고라스는 많은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퍼뜨렸다. ex)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길을 걷다가 쇠를 망치로 치는 소리를 들었다. 흔한 일반인이라면 매우 성가시고 짜증나는 소리라 느낄 수 있었을 테지만, 피타고라스는 달랐다. 그는 망치들이 내는 소리가 완전5도라는 것을 깨닫고 망치들의 무게의 정확한 비례관계 안에서 음정의 조화가 발생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일정한 비로 추를 매달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 것을 바탕으로 악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런 피타고라스는 현재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리했다. 그 결과 피타고라스는 음악과 수학을 통해서 우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주위에 대한 ‘관심’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 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하나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에게도 자신의 대포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날라가고, 어느 정도로 발사해야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하나의 관심사 이였고, 거기에는 수학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누구에게는 별것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문을 읽고 배워야하는 이유라 생각하고 이 책도 그것을 수학이란 학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해주는 것 같다.

이 책은 나에게 수학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 수학에 대해 거부감 없이 어떻게 수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으로써 수학을 단순 입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나의 관념을 깨뜨려 버린 책이었던 것 같다. 또한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진정한 수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수학을 어떻게 배워야 하나?”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